

문화매일



제1445호

2023/8/24/Thu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후쿠시마 오염수방류는 인류의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

오염수방류는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

김동연 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0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 규탄 한다고 밝혔다.

이러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 것으로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전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심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지사는 오염수 방류 관련해 “과학”과 “과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이며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엇그제 만난 수산물 상인은 방류도 하기 전에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다. 국내 소비의 급감은 우리 경기 침체를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과감으로 치부하고 있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하며 “어제는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과학적으로 안전하지도 않을뿐더러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갉아 먹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라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성명서 제목을 언급하며 방조를 넘어 공조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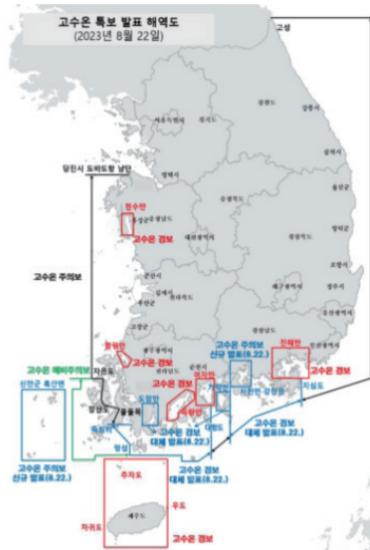
또한, 김 지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하루 남긴 시점에서 “영화 ‘괴물’에서 한강에 유해 화학물질을 버리는 영화 속 장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공통점이 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불확실하다



김범상/기자

해양수산부,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 고수온 정보 대체 발표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은 고수온 주의보 발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8월 22일 15시부터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를 각각 발표했다.

여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서는 28°C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됐고,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은 25.6~27.5°C 범위의 수온을 기록했다.

8월 22일 10시 현재, 경보로 대체된 해역의 수온은 28.0~30.0°C, 주의보로 확대 발표된 해역의 수온은 25.6~27.5°C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 중 인천·경기를 제외한 연안, 전남 흑산도 및 제주도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됐다.

우동식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양식 어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수온 대응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성지아/기자

세계 최초 듀얼 UHD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9’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듀얼 UHD 해상도가 적용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9(모델명: G95NC)을 게임스کم에서 선보인다.

오디세이 네오 G9은 57형에 32:9 슈퍼 울트라 와이드 비율, 1000R 곡률, 듀얼 UHD(7,680 × 2,160) 해상도를 지원하며, 32형 크기의 UHD(3,840 × 2,160) 모니터 두 대를 나란히 붙여 놓은 것 같은 형태로 넓은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밝기 1,000니트에 최대 1ms의 빠른 응답속도와 240Hz의 높은 주사율로 잔상이나 끊김 현상이 없어 고성능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

* 듀얼 UHD, 240Hz의 경우 DP 2.1 표준 규격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필요
오디세이 네오 G9은 HDMI 2.1 뿐만 아니라 DP 2.1도 탑재되어 PC 연결성도 강화했다.

특히 DP(DisplayPort) 2.1은 DP 1.4 대비 약 2배 이상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 초고화질 영상과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며, 시각적 무손실 압축 DSC(Display Stream Compression) 코덱을 적용해 영상 정

보를 왜곡 없이 전송한다.

오디세이 네오 G9은 ‘퀀텀 미니 LED’와 ‘퀀텀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화질을 자랑한다. 기존 제품 대비 40분의 1 크기의 초소형 LED는 밝기와 명암을 더 섬세하게 제어하고 고대역 영역에서의 빛 번짐을 줄여 편안한 게임 화면을 구현한다.

정확한 색과 대비 표현, 최대 1,000니트 밝기와 VESA Display HDR™ 1000* 인증을 받았으며, 매트 디스플레이(Matte Display)를 적용해 자연광이나 반사광으로 인한 화질 저하와 눈부심 없이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비디오전자공학표준협회

오디세이 네오 G9은 최대 240Hz의 고주사율과 1ms(0.001초, GTG 기준)의 빠른 응답 속도를 갖춰 강력한 게이밍 퍼포먼스를 지원한다. 화면 지연이나 모션블러 현상을 없애 캐릭터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표현하므로 FPS와 같이 화면 전환이 빠르고 동적인 게임에 적합하다.

동작이 빠르고 복잡한 게임 장면에서 끊김이나 이미지 깨짐 현상을 방지하는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AMD FreeSync™ Premium Pro)’ 기술도 적용돼 HDR 환경에서도 더 밝고 생생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두 대의 PC를 연결해 동시에 각 화면을 출력하는 PBP(Picture By Picture) 모드와 화면안에 작은 화면을 띄울 수 있는 PIP(Picture In Picture) 모드를 모두 지원해 게임과 동시에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는 등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오디세이 네오 G9은 CES 2023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부문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8월 30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제품 출고가는 280만원이다. 한층 더 강화된 기능의 ‘오디세이 아크’ 첫 공개

삼성전자는 게임스کم 2023에서 한층 강화된 성능의 오디세이 아크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오디세이 아크(모델명: G97NC) 55형은 기존 모델(G97NB) 대비 연결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3개의 HDMI 포트 외 1개의 DP 포트를 추가해 IT 기기 연결성을 높였고, KVM(Keyboard, Video monitor,

Mouse) 스위치 기능을 새로 탑재해 하나의 키보드·마우스로 최대 4대의 PC까지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 KVM 스위치 기능의 경우, USB Upstream 케이블 연결 및 Easy Setting Box S/W 설치 필요

특히, 오디세이 아크만의 새로운 멀티뷰 기능을 이용하면, 최대 4개의 외부기기 동시 입·출력이 가능해 게임 플레이와 동시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풍부한 멀티태스킹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오디세이 아크는 세로형 콕핏 모드(Cockpit Mode)가 가능한 게이밍 모니터로 독보적인 폼팩터를 자랑하며, 1000R 곡률의 풀 스케일 화면으로 게이밍 경험을 확장한다.

* 세로형 콕핏 모드, 멀티뷰 기능 최대 3개 화면 지원

이 제품은 ‘플렉스 무브 스크린(Flex Move Screen)’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화면의 크기·비율·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어드벤처·시뮬레이션·RPG·FPS 등 게임 특성에 최적화된 모드 설정이 가능하다.

오디세이 아크 역시 ‘퀀텀 미니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매트 디스플레이

를 적용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고화질로 즐길 수 있다. ▲4K UHD 해상도(3,840 × 2,160) ▲최대 165Hz 고주사율 ▲최대 1ms(0.001초, GTG 기준)의 빠른 응답속도를 갖춰 게임 플레이에 몰입감을 더한다.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서비스인 ‘삼성 게이밍 허브’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는 별도 기기 연결이나 다운로드, 저장 공간의 할애 없이 클라우드 게임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김범상/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 #예천 #유지안의섬 #봉황다리 #트래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물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 #삼강주막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곤충도시 Clean 예천

이철우 경북도지사, “디지털화된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라”

을지연습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비상대책회의서 강조



경북도는 한·미 연합자산과 함께 정부 연습 일환인 을지연습 진행 중 국가 비상사태(을지2중)가 선포돼 도청 충무시설 종합보고장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북도는 전시 비상대책 간부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실국별 전시 임무 수행절차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이와 병행해 사태별 조치목표에 의거 전시종합상황실 개소, 전시 창설기구 설치, 전시 직제 편성 등 전시 전환 절차를 수행했다.

이 자리에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쟁 시에는 너와 나, 따로 구분이 없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다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을지연습의 중점인 북한 핵무기 사용 압박, 핵 사용 시 대처방안, 신안보 위협 요소인 드론·사이버전·테러에 대한 대응과 6년 만에 전 도민이 참가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한 사전홍보와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역 장군으로 편성된 민간 전문평가단에게는 경북도의 전시 대비 계획 및 전시 전환 절차, 사건 메시지 처리 등 총무계획 상 제시된 항목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한반도에서의 북핵 미사일 위기, 북중러와 한미일 동맹의 긴장 고조로 파생되는 신냉전에 처한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금은 시대 상황 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는데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화된 새로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방식의 위협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임무수행체계로 전환하고, 20~30대 MZ세대의 상상력을 더해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시 대비 연습이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임무를 확인하고 숙지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활동 착수

신의준 위원장, 완도-제주간 해상경계·관할권 권한쟁의심판 승소 필요성 강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신의준 위원장을 비롯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배용석 해양풍력산업과장, 김현란 완도군 해양정책과장, 법률자문단 및 어업인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하여 해상경계 분쟁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등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은 기존 어업권 분쟁에서 최근 해상풍력산업, 매통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다수의 분쟁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분쟁들의 발생과 모순되게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경계가 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 위원장은

“해상경계 문제는 연접 지체간, 시도간, 국가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지역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며, “미래의 바다는 어업권을 넘어 해상산업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험사리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 후 첫 단추인 ‘완도-제주간 해역분쟁’을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충실한 이행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완도군은 “제주도는 국가 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해역이 제주관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도상 해상 경계선은 국토지리원에서 개략적으로 표시한 임의의 선에 불과하며, 완도 소안, 청산, 보길, 노화 어업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업활동을 이어온 터전이다”며 본 협의체와 견고한 대응체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해역대응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완도 장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제주도가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박종배/기자

부산시의회, 암 관리 지원 방안 간담회 개최

가임력 회복, 치료 후 재활 프로그램, 영케어러 지원 등 다양한 암관리 지원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암 관리 지원 조례의 연속적인 활동으로 암 애프터케어 지원 사업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18일 11시)

성서울병원 조주희 센터장, 부산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장, 부산시 건강정책과, 구의원, 부산 소재 보건소, 민간 기업 등이 참석하여 사업의 구체성 확보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전국 암 경험자는 약 215만명 이다. 부산은 그 중 암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인 도시다. 반면 암 치료성적 개선으로 인한 암 5년 상대생존율은 71.5%로 시대적으로 치료 이후의 삶이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 차원의 암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체계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지연의원은 지난 2월 젊은 암생존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개정했고, 6월 서지연 의원은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제정하여 암 치료 이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암생존자 통합지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본 간담회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를 통해 의료 관리와 자기관리의 효과를 증폭시켜주고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건강한 개인이 암을 경험하게 되면 개인으로서의 치료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경력상의 문제, 학업 문제, 육아 문제 등 질병 치료로 인한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암 발생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차상위 계층 증가, 영케어러 발생 등의 문제를 직면한다. 이와 같이 질병 예방과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사회 복귀 과정까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한다는 것이 본 간담회의 주요 목표이다.

본 간담회에서는 만 44세 이하의 항암 치료를 앞둔 여성에 대한 가임력 회복 지원 사업과 재가암 사업 확장, 더하여 지산학 협력을 통한 치료 후 재활 및 회복 시스템을 보건소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동시 마련하는 등의 사업이 논의됐다.

서지연 의원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

서만 이루어져 왔던 암 관리 시스템을 부산이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모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공공성을 띄고 역할을 함으로써 암 관리의 지역완결성과 통합성을 기대하고 전국 최초 우수 사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부산시 차원에서 시행할 암 관리 세부 집행 계획과 더불어 지원 사업들에 대한 수혜자 의견 청취를 통해 개선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는 과정을 면밀히 진행하고 새로운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연 의원은 암을 경험한 부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기능 복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다양한 암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건강 돌봄과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암 치료 이후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기 위한 부산시의 따뜻한 보살핌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희태/기자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U자형 안전막대’로 서울 지하철 흥기 난동 막는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U자형 안전막대’ 등 안전장비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을 비롯해 역사 내 흥기 사고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는 흥기난동 등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고객안전실(역무실)에 구비·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정하도록 했다.

새롭게 도입될 안전장비로는 U자형 안전막대가 검토되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흥기 난동자를 제압할 때 활용되는 이 장비는 길이가 2m 이상이어서 상대방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2인 이상이 함께 벽으로 몰아 움직임을 저지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여성과 노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일본에서는 유치원, 학교, 관공서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 장비를 역무실에 3~5개가량 배치해 유사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

보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최근 지하철 역사 내 흥기난동 등 범죄 우려로 시민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일 서현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칼부림이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철학역과 왕십리역, 신림역 등 지하철 역사 또는 역사 인근을 중심으로 칼부림 예고가 잇따랐다. 19일에는 2호선 전동차 내 흥기 난동으로 2명이 다치는 등 무차별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톱킹 살인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자체적으로 역무원 안전장비를 도입해왔다. 전자호루라기와 경보기, 후추스프레이, 방검복, 방검장갑, 전자충격기 등을 지급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번 조례가 마련되면 시 차원에서 U자형 안전막대를 비롯해 안전방패 등 안전장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생긴다.

최광수/기자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2023년 을지연습 관계자 격려

8월 21일 대구시 충무상황실 방문하여 관계자 노고 격려



대구광역시의회 확대의장단은 8월 21일 오후 1시 30분 대구시 충무상황실을 방문해 24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2023년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확대의장단은 을지연습 주관부서장인 사회재난과장으로부터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보고 받고,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관계자들의 비상대비태세

상황을 면밀하게 둘러보았다.

확대의장단은 무더위 속에서도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만규 의장은 “최근 북한 핵위협 및 국가 중요시설 테러 예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실천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

고, 국가비상 시 완벽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되는 공수 대비 민방위 훈련(8.23.)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양시의회, 2023년 을지연습 참가 기관 방문격려

안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안양시청, 경찰서(만안·동안), 수도권단, 안양소방서 총 4개 기관을 방문해 을지연습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최병일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이 각 기관을 방문해 2023년 을지연습 훈련모습을 참관하고 주요상황 등을 청취했다.

최병일 의장은 “2023년 을지연습에 참가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훈련의 목표에 맞게 실제 상황이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각자 맡

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상의 성과를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결속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을지연습은 민-관-군이 합동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 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신우용/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피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 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논의

용인에 달빛어린이병원 1곳도 없어 소아·청소년 일반진료 받지 못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용인시에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8월 22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최중현 위원장, 경기도 보건의료과 원장 과장, 응급의료팀장 김수진 팀장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소아·청소년은 고열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야간에 아픈 경우가 많은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110만 용인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1곳도 없어 소아·청소년이 일반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소아·청소년 인구는 20여 만명에 달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내 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중현 위원장 역시 "지역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건수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수원, 화성, 고양, 오산, 파주 등 총 16곳이 운영 중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김동연, 이·통장에 "도정의 성패 달려. 도와 주민 연결 적극 역할 당부"

도, 22일 경기도청에서 이·통장 350여 명과 함께 '이심전심 통하는 이·통장 아카데미'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지역 최일선에서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들을 만나 격려하고,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이장과 통장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심전심 통(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아카데미 형식의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로 도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똑같다"라며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이장님, 통장님들은 공무원보다 훨씬 중요한 분들이 제가 펴려고 하는 도정의 성패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시군과 주민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이심전심 통(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에서는 민선8기 처음으로

로 김동연 지사와 도 이·통장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통장들은 평소 경기도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경기도민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고, 같이 상생하고 포용하면서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며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팬데믹, 저출생 등 우리에게 놓여있는 과제들에 대해 경기도가 해답을 찾아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좋겠다. 저와 함께 한 팀으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이·통장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 29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으며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긴급복지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이장 4,133명, 통장 1만 2,937명 등 총 1만 7,070명의 이·통장이 활동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공기관 정담회 통해 지역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상황 점검

도 공공기관 6개 기관과 지역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상황 점검 정담회 개최



경기도 내 지역별 현안을 '정책'으로 녹여내는 작업에 한창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2일 경기도 공공기관과 정담회를 갖고 기관별 지역 정책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최승용, 한원찬, 김태희,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일자

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장경관진흥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를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은 각 공공기관 소관의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최승용(국힘·비례) 의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과 필요성이 있는 제품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인 "배달특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원찬(국힘·수원6) 의원은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의 구별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며, 경기도 맞춤형 중장년 정책 개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희(민주·안산2) 의원은 "도내 공공체육시설, 특히 학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개방으로 도민들에게 효용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은 "경기문화재단이 유무형의 자원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기반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콘텐츠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의 협력적 OSMU(One

Source Multi Use) 체계 구축과 운영으로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추진"을 제안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도민들께서 바라는 시·군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와 최일선 집행기관인 공공기관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안을 정책으로 풀어어나가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한 최일선이 바로 공공기관"이라며 "시·군의 목소리가 담긴 현안별 정책과제들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각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4천 101건의 지역 현안을 발굴해 이와 연계된 중점 정책 681개를 선별했으며, 이를 55대 정책분야와 104건의 정책과제로 분류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국, 시·군과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조례 제정 추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광역 연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광역 연계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초기 집중대응 시간인 골든타임(Golden Time)의 확보가 중요하다. 응급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대응 목표시간은 통상적으로 5분으로 설정된다.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량이 화재 골든타임인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사망자는 2배, 사고피해액은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녹색신호에 지나는 차량과 측면 충돌하여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 1명이 사망하고, 구급대원 3명, 이송환자 1명, 승용차 2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

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신호위반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 발생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을 미리 감지, 신호를 제어하여 긴급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기법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2017년 경찰청에서 의왕시 5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한 결과, 긴급차량 통행시간이 평균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끊김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선신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차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제시시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



군 내에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100%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순차적인 시군간 광역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적이고 체계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IT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주시와 고양시에 대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사업비 37억)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6일(수)에 화재출동[운정119안전센터→(가상 화재현장)파주 LH사업단] 및 구급후송[파주 LH사업단→고양 백병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의정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8월 22일 2023년 의정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 계획 △지역교육협력 사업 운영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 근거와 지역의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의정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향후, △지역교육협력 정책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 극대화 △지역교육협력 정책 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 △지역교육협력 정책의 주요 운영 사항 심의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해 지역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의정부이룸학교 운영계획 및 활동, 의정부이룸학교 공모형 사업 심사 결과 심의, 의정부이룸학교 캠퍼스 운영 규정 제정 등에 관해 운영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김정영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교육협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어 교육공공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시민 편의 높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용인대입구삼거리 가변차로·시티포인트·315호선 지하차도 등



메신저 앱을 통해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초미착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와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빚던 용인대 입구 삼거리 가변차로 도입 등 7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올 하반기 용인시를 대표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특례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발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 7건의 행정 서비스를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자체 평가를 통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

례'를 선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총 28건의 사례를 1차 서면 심사와 2차 온라인 설문 심사로 평가해 7건으로 추렸다.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공공성과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7건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심의 결과 '생활행정톡'(기흥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기흥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

설물 유지보수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생활행정톡'을 운영해왔다. 파손된 맨홀 정비나 교통표지판 교체 등 민원 종류는 다양하다.

구는 생활행정톡 도입으로 지난 1년간 1024건의 민원을 접수, 95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당일 처리는 20%, 3일 이내 처리는 48%, 7일 이내 처리는 60%에 달하는 등 초고속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다.

2위에는 '용인대 입구 삼거리~용인대학교 구간 가변차로 도입'(처인구 교통과)이 선정됐다.

출근 시간대에는 용인대 방면이, 퇴근 시간대엔 용인시청 방면이 심각한 정체를 빚는 해당 구간의 특수성을 감안, 시간에 따라 차로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차로를 적용했다.

가변차로 도입 이후 출근 시간대 용인대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시간당 1200대에서 1420대로 늘어나는 등 차량 흐름이 대폭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4차산업융합과)다.

이 서비스는 각종 신용카드와 캐시백 서비스 등 여러 곳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전

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인시가 처음 도입했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8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4위에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협약 체결, 16년 묵은 난제 해결'(건설정책과)이, 5위에는 '입주 막힌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 진출입로 마련'(도시정책과)이 선정됐다.

6위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송수가압장 인허가 문제 해결'(도시개발과), 7위는 '수명 다한 도서관 제작도서 복 세일 서비스'(도서관정책과)가 차지했다.

시는 이들 우수사례를 추진한 담당자를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포상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 하반기에도 용인시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11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높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산시 상록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협력 추진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21일 수치지역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산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력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기준이 되는 측지계를 말하며, 좌표계의 원점이 지구중심을 사용하는 좌표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없다. 따라서, 지적공부와 공간정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고 신기술 활용 등 국제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국제표준의 측지계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측지계'를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해 왔으며, 국제표준과 약 365m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간정보 사업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록구는 앞서 지난 2020년에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을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기준점 2,674점의 세계측지계 좌표를 관측하고, 도해지역 22,175필지의 좌표변환을 2021년 5월에 완료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계점좌표 수치지역 변환대상 조사 ▲시범지역 선정·추진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대안 마련 ▲현장검증, 성과조정 및 비교검증, 변환성과 결정 등을 상호 협력·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수치지역 17,552필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유용훈 상록구청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산시사와 상호 협력해 세계측지계 변환을 신속·정확하게 추진해 지적공부의公信力 제고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화성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특색에 맞는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 도출 기대

화성시가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화성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활용한 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재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시 지역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 ▲화성시 해양관광 축제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기타 지역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시는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성 뱃놀이축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내 관광을 선도하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은 우리 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시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안양시, 안양역 앞 원스퀘어 철거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23일부터 75대 주차 가능... 수암복개공영주차장 철거 불편 최소화

안양시가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 '원스퀘어'가 있던 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시는 만안구 안양동 668-29 일원에 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달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근에 있는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암복개공영주차장(안양동 1195-1)이 9월 초에 철거될 예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스퀘어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철거 부지가 공터로 방치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토지구와 수 차례 논의를 거쳐 해당 부지를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6~8월 약 두 달 동안 토지주는 단차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경계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기반 조성공사를 했으며, 시는 가로등 설치와 주차구획 도색, 주차관리시스템 및 스토퍼 설치 등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를 마쳤다.

이번에 조성된 임시 공영주차장은 해당 부지에 건축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 유휴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주차요금은 기존 수암복개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최초 30분 600원, 이후 1시간까지 10분당 300원, 이후 누진할증제)와 동일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공원과 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 안양일인가 등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1998년 10월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원스퀘어의 건축주에게 사업 재개를 지속 촉구하고 건축주가 차단을 해소하고, 철거 부지가 공터로 방치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6~8월 약 두 달 동안 토지주는 단차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경계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기반 조성공사를 했으며, 시는 가로등 설치와 주차구획 도색, 주차관리시스템 및 스토퍼 설치 등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신우용/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안내

119개 단지 대상으로 실시 중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호, 2023. 1. 5., 일부개정.]를 근거로 사이버 교육을 1년 365일 내내 실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향후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해 주이용자인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성남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7번째 브리핑 개최

"친환경 교통수단 구축과 촘촘한 현장점검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성남시 구현"

성남시는 민선 8기 1년을 맞아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 및 언론인과 공유하기 위해 교통도로국 주관으로 8월 22일 오전 11시 한누리에서 일곱 번째 시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은 "성남시를 교통 허브로 만들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교통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문화 정착 ▲주차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및 주차공유 확대 ▲안전한 성남을 위한 도로 정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적의 교통체계 구축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2024년까지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하철 3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트램 건설 등 철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철도기금 적립과 철도사업추진자문단 구성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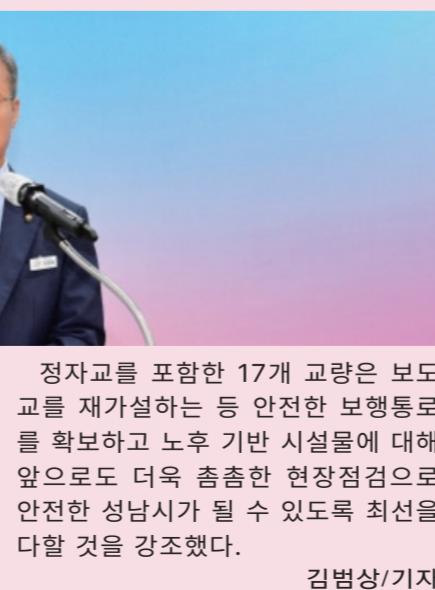
2024년까지 모란역~남한산성 입구까지 1단계, 2025년까지 복정~모란역 구간의 2단계 S-BRT 사업을 우선 추진해 원도심 지역의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교통사각지대 없이 편이히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성남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대규모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공급 다각화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도 진행해 올해 총 13개소 1,054면의 공유주차장을 개발하고 민영주차장 건립공사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자교를 포함한 17개 교량은 보도교를 제거설하는 등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현장점검으로 안전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인천 중구, '2023 인천 차이나타운 짜장면축제' 내달 2~3일 개최

인천 차이나타운서 중국 전통의 맛과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 마련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9월 2~3일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어서와! 차이나타운은 처음이지?' 2023 인천 차이나타운 짜장면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차이나타운 메인거리를 중심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경관을 조성하고, 중국 전통 버스킹 등 문화행사를 통해 행사장을 찾은 관광

객이 마치 중국 거리를 방문한 듯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중국 요리의 비밀을 직접 엿볼 수 있는 수타면 체험과 짜장면 시식회 등 짜장면 관련 이벤트뿐만 아니라, 전통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용춤과 사자춤으로 대표되는 중국 전통 공연과 중국을 대표하는 갖가지 캐릭터와 인물이 등장하는 퍼레이드도 행사의 백미로 꼽힐 예정이다.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이사장 김정현 중구청장은 "오랜만에 차이나타운에 돌아온 짜장면축제를 통해 행사장을 찾은 모든 관람객이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라며 "짜장면에 얽힌 추억을 함께 되살리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2023 인천 차이나타운 짜장면축제'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구문화재단 생활축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남/기자

수원시 '고색데이' 참가해 친환경 샴푸바 만들어보세요

'고색데이' 참가할 수원산업단지 종사자·시민 모집

수원시가 8월 문화의 날을 맞아 친환경 고체 샴푸바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 '고색데이'에 참여할 수원산업단지 종사자·시민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8월 31일 고색뉴지엄 교육실에서 열리는 '고색데이'에서는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를 주제로 플라스틱 샴푸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고체 샴푸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재료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로웨이스트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며 환경과 자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시민의 소망! '부천시립역곡밝은도서관' 개관

역곡 남부지역 주민 염원 이뤄...1~4층 규모 독서문화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부천시가 오는 8월 30일 역곡밝은도서관을 개방함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소외지역인 역곡 남부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이뤄졌다.

역곡밝은도서관(620.35㎡)은 총 30억1500만원을 투입해 1~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해 6월 착공, 올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역곡밝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독서문화 공간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1층은 종합자료실과 북카페, 3층은 아동·유아자료실, 4층은 문화프로그램실로 구성돼 독서와 휴식을 즐기는 독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다. 2층은 지역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센터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조성돼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과 국가 지정 공휴일에 휴관한다.

한편, 개관식은 오는 8월 30일 오후 3시 조용익 시장을 비롯해 내·외빈,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기념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역곡밝은도서관 개관으로 역곡 남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만큼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독서문화와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이천시 효양도서관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64, 65호 달성 김지한, 김지효 어린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사업



이천시 효양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읽기' 사업의 64, 65번째 천 권의 책 읽기 달성 주인공이 탄생했다.

좋은 책을 읽어주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세천책을 시작했다는 64, 65호 세천책 달성의 주인공 김지한, 김지효(6세 쌍둥이) 어린이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1,000권의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며 시작했지만 아이들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다 보니 어느새 천 권의 책을 모두 읽을 수 있어 기쁨을 느끼게 됐다.", "책을 읽으면서 한글 실력이 많이 늘었



고, 책을 읽어주는 30여 분의 시간을 오롯이 아이들과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는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남겨주었다. 유아 때부터 책 읽는 재미를 알아 평생 독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효양도서관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읽기'는 2017~2019년생 어린이(2023년 기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효양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세천책 꾸러미를 빌려 갈 수 있다.

이성울/기자

시흥시, 목공·숲 체험 행사 가득한 '2023 숲에서 놀자!' 개최

역곡 남부지역 주민 염원 이뤄...1~4층 규모 독서문화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시흥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숲에서 놀자!' 행사를 개최한다. 관내 목공·숲 체험 홍보와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숲에서 놀자!'는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래산 산림욕장 내 소래산 놀자숲에서 진행된다.

해당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들은 목공·자연물 작품 전시회 및 만들기 체험과 자연물 놀이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캠핑과 소풍을 주제로 한 목공품 전시와 자연물 작품 전시는 행사 기간 내 감상할 수 있으며, 소래산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숲 밭출 놀이와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만들기 체험으로는 목재 휴지걸이와 나무 메모꽃이, 열쇠고리 제작이 진행

된다.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담긴 목공·자연물 작품 제작 과정 체험으로 참가자들의 흥미를 돋울 예정이다.

강승희 시흥시 녹지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공·산림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전남도, 행안부 '고향올래 사업' 5곳 전국 최다

고흥·영암·광양·순천·곡성 선정 25억 확보...생활인구 확보 기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고향올래(GO郷 ALL來) 사업'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올해 도입했다.

공모 분야는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휴 생활 기반시설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위케이션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국비 100억·지방비 100억)이다.

공모를 통해 11개 시·도의 21개 사업을 선정했다. 전남에선 15개 사업을 응모해 ▲두 지역 살아보기에 고흥, 영암 ▲청년 복합공간 조성에 광양 ▲위케이션에 순천, 곡성이 선정됐다. 예산은 각 사업당 10억 원 내외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되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두 지역 살아보기'에 선정된 고흥은 '주말애(愛) 고흥애(愛)'를 주제로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거공간 조성, 공동생활원·개발터널 지원, 농촌체험과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영암은 폐교 부지를 활용해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문화교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양은 창업인큐베이팅 및 주거공간 등 청년복합공간을 조성해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케이션은 일(Wokr)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뜻한다. 이번 위케이션 분야에는 순천과 곡성이 선정돼 각각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피스 공간 등을 조성한다.

전남도는 체계적 공모 대응을 위해 신청 시점부터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공모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도, 시군, 관련 단체가 협력해 현장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행안부를 수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 설명해 5곳이 선정되는 결실을 봤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남지역에 많은 생활인구가 유입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사업 확대를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한불 첫 외교사 다시 썼다" 나주시, 한불 학술포럼 성료

나주목사-프랑스 영사, 양국 관료 공식적인 첫 만남 주목

전남도 나주시가 1851년 프랑스 고래잡이배 비금도 표류 사건을 재조명하는 학술포럼을 열고 한·불 양국 외교적 첫 만남 역사를 새롭게 정리했다.

나주시는 전남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불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 재조명을 위해 열린 이날 학술포럼은 1부 주제발표(3건) 2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장현범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박우량 신안군수, 이상만 나주시의회위원장, 김희중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오영교 한불통신 대표, 김정희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임형택 미래문화교육연구소 이사장 등 주요 내빈, 문화·국제교류기관, 시민과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주한프랑스대사관 요한 르 탈렉 문정관, 프랑스 파리 시테 대학 피에르 엠마누엘 후 교수와 이정현 나주목사의 후손, 광주·전남 중·고교 역사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피에르 엠마누엘 후 교수는 병인양요보다 15년, 조물 우호 통상조약보다 35년이나 앞선 1851년 한국(조선)과 프랑스가 첫 외교적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낸 장본인이다.

엠마누엘 후 교수는 '비금도의 고래와 삼페인, 한국과 프랑스의 또 다른 첫 만남'이라는 주제로 1851년 프랑스 '나르발'(Narval)호 사건의 개요, 연구 과정, 역사적 의미 등을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1851년 프랑스의 고래잡이배 나르발호가 전라도 연안 근처에 좌초되면서 선원 20여 명이 표류돼 비금도에 도착했다.

불행한 소식을 접한 중국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샤를 드 몽티니'는 선원들을 구출하고자 비금도를 방문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선원들은 조선인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당시 비금도(신안군)는 전라남도 일대를 관할했던 나주목의 나주제도(羅州諸島)에 속했다.

이에 몽티니 영사는 귀국 전날인 1851년 5월 2일 나주목사 이정현과 자국 선원들을 잘 보살펴준 조선의 인도주의와 우호에 감사하는 기념 만찬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나주목사와 몽티니 영사는 조선의 전통술과 프랑스의 샴페인을 함께 나눠 마셨다. 만찬 이후 몽티니 영사는 옹기주병 3병을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 세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옹기주병은 현재 해당 박물관에

한국 유물 제1호로 소장되어 있다.

윤병태 시장은 발표 도중 172년 전 양 관료들의 첫 만찬에 사용됐던 옹기주병(재현품)을 청중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엠마누엘 후 교수는 나르발호 표류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 "서양 외교관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사건"이라며 "이전에도 조선 땅에 들어간 프랑스인들이 있지만 외교관으로서의 처음이며 몽티니 영사가 전라도 현지 관료를 만남으로서 공식적으로 양국 관료가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후 교수는 이어 "대부분 한·불 첫 만남을 선교사 박해, 병인양요와 같은 갈등으로 생각하지만 나르발호 비금도 표류 사건을 보면 갈등이 아닌 인도주의적 만남이었고 음식과 술이 있는 문화 교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주에 나주목사 '이정현길'을, 비금도에는 나르발호길을 만들고 이 사건을 영화로 제작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유쾌한 강연을 마무리했다.

엠마누엘 후 교수에 이어 오영교 한불통신 대표의 '19세기 고문서에 기록된 한·불교류, 한국을 찾은 프랑스인'과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의 '조선 후기 이양선과 나주목 비금도 표류 이국인'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2부 토론은 류한호 전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순남 전 전라남도 부지사, 김영미 동신대 교수, 이지호 전남 도립미술관장, 정종대 농촌공간연구소장, 나주시와 신안군 학예연구사 등 7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불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주한프랑스대사관 요한 르 탈렉 문정관은 축사를 통해 "한·불 양국의 공식적인 교류를 가능케한 역사적 배경을 새롭게 조명하고 당시 상인들과 외교관을 기릴 것"이라며 "나주에서 열린 한·불 외교사 학술포럼이 양국의 미래 협력에 여감을 줄 수 있는 풍부한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개회사에서 "한·불 첫 만남의 역사를 과거에 가두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나주의 노력에 오늘 포럼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시장은 이어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던 전라도 중심지 나주의 사명을 생각해 오늘 포럼을 개최했다"며 "나주가 거점이 돼 역사·문화를 사랑하는 한·불의 우호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안/기자

'가치'에 소비하세요. 남원시사회적경제기업에 크라우드 펀딩 3천4백여만원 돌파

소비자 1천여명 선택받아 목표 대비 1,740% 판매율 달성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이 소비자들의 열띤 호응으로 높은 판매율을 달성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은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마케팅 방안으로 가치 소비에 앞장서는 남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총 5개소가 참여하여 누룽지,

김부각, 우무채 밀키트, 천연 바디워시, 햅쌀 등을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기부, 사회문제 해결, 우수 제품 홍보에 강점이 있는 국내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하여 기업별로 40일간 진행됐으며,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이 호반하는데 주력했다.

선발 주자로 선보인 4개 기업 펀딩 결과 총 판매금액 34,795,400원, 판

매 목표 대비 평균 1,740% 초과 달성, 소비자 925명 펀딩 참여라는 높은 실적을 보이며 순항 중이다.

펀딩 첫 주자로 나선 마을기업 ▲지리산할치마을영농조합(누룽지, 조청)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생산한 100% 유기농 쌀을 원료로 '유기 가공' 누룽지를 선보여, 경쟁 제품과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보였다. 친환경 웰빙 식품에 관심이 많은 이유식, 환자식, 노인식 수요를 겨냥하여 당초 판매 목표 대비 863%의 높은 달성률을 거두었다.

예비사회적기업 ▲(유)하이오백(김부각)은 지리산 해발 500m 청정지역에서 30년 전통 방식의 노화로 생산한 수제 김부각을 선보였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와 자립을 돕는 따뜻한 부각이라는 사연으로 소비자들의 공감을 일으켰다. 연일 소비자들의 뜨거운 참여가 이어져, 판매 목표 대비 4,410% 달성률과 22,052,300원이라는 높은 참여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네이버 해피빈 김부각 펀딩 중 두 번째 높은 매

출로, 펀딩 첫 진입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허브네이처(천연성분 바디워시)는 판매 목표 대비 450% 달성 ▲지리산뱀사마을촌향골(우무채 3종)은 1,236% 달성하면서 청정 남원의 이미지와 함께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주자로 다가올 추석을 맞이하여 양질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기업 ▲농업회사법인 비즈양조(햅쌀)는 섬진강 자락 금지면에서 생산된 찰진 청정 남원 쌀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펀딩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의 새로운 동력을 얻은 (유)하이오백 허정진 대표는 "2023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사회적경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업 홍보와 판로 확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남원 김부각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품 생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주)씨엔에스컴퍼니 창업 3년만에 이룬 쾌거!

빛그린국가산단 새 보금자리로 자리잡은 'CNS Company'를 주목하자

'(주)CNS Company'는 최근 산업현장, 의료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용할 수 있는 광학 보안경을 개발 및 제작하는 기업이다.

'(주)CNS Company'는 2022년 12월 함평군과 투자협약 체결 후 광주전남 빛그린국가산단단지 내에 사옥 및 제조공장 신축을 진행해 지난 17일 준공식을 가졌다.

사옥은 지상 2층으로 약 330㎡, 공장장은 약 992㎡의 규모로 건축했으며 이번 공장 신축을 통해 자체 설비 라인을 갖추어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창업 3년만에 이러한 자체 공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단연 (주)CNS Company의 대표 효과 상품인 'Softgle'이다.

'Softgle'은 보안경으로 모두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 보안경 분야의 신형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주)CNS Company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보안경뿐만 아니라 산업, 의료 등 전문적 용도의 보안경도 생산한다.

아울러 향후 AI 기술을 접목해 의료, 레저, 스포츠, 생활 안전, 특수목적 등 다양한 용도에 맞는 보안경 출시 계획

을 밝혔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안경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농협, 삼성,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과 납품에 관련된 협업을 논의 중에 있으며 공구 및 산업안전용품 전문 유통법인 '공구왕황부장' 채널과 협업을 진행해 널리 알려져있다.

(주)씨엔에스컴퍼니 관계자는 "사옥 및 제조공장 신축에 협력해준 함평군에 감사하다"며 "자체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상품을 제작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기자



순천 청년, 자격증 취득 걱정 없다

순천시에는 청년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취득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남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대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자가 취업준

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시, 1인 1회 시험 응시로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 시 가능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전남일자리종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자격증 취득사업뿐만 아니라 '전남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는 전남

소재 중소기업 면접자가 면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 5만 원씩 최대 2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플러스일과 장학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6개월 이상 순천 거주자가 어학 시험, IT 자격증, 나무의사 취득 시 학업 장려금 30~50만 원을 지급한다.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취득한 어학 성적표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준/기자

순천시 청년정책과가 맡고있는 장학금 & 지원사업



전북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가동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가동



전북도는 현재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밤 22시 30분 익산시 합라면 58mm, 부안군 위도면 35.5mm 고창군 상하면 21.5mm, 군산시 13.8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23일 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80mm(많은 곳 고창, 부안, 군산, 김제 등 120mm이상) 예보하고 있어,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

보되어 있어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이 우려되어 논물길 정비와 같은 농업시설 정비를 위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하수도 및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5일 아침까지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계곡, 하천 등 산간지방은 집중호우로 계곡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접근을 삼가주시기 바라며, 특히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은 출입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란다" 도민안전을 강조하며, "22일 20시를 기해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황 발령함에 따라 땅에서 소리가 나거나 경사면에서 물 솟구침 등 산사태 전조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대피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주민자치의 포문 '주민자치협의회 출범'

완도 발전 위한 결의문 낭독, 각오 다져



완도군은 지난 16일 생활문화센터에서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식과 초대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출범식 및 취임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윤재갑 국회의원, 도·군의원,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들과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협의회의 시작을 알려 주민 주도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완도군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초대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장에는 유승진 완도읍 주민자치위원장이 취임했다. 유승진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초대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책임감을 갖고 주민 주도 풀뿌리 주

민자치를 실현하고 협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우철 군수는 "우리 모두가 완도의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과 주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주민자치의 성장을 위해 힘껏 뛰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군에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자치 우수 시군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영울/기자



구례군 드림스타트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캠프' 운영

전남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8월 16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하이힐링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등 행위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에 주관하는 이번 캠프에 구례군 드림스타트가 공모해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산림을 통한 자연치유 프로그램, 도전 중독타파, 디톡스 챌린지, 힐링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력과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시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아동들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터득하고, 자연과 함께 우정을 키우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복지, 건강, 상담 및 부모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성현/기자



'해트트릭' 목포 제갈재민 "반드시 우승하겠다"

목포 청소년,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 모색

선두 화성FC와의 중요한 일전에서 '해트트릭' 원맨쇼로 승리를 이끈 FC 목포 제갈재민이 역전 우승을 다짐했다. 조덕재 감독이 이끄는 목포는 지난 20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화성FC와의 2023 K3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제갈재민의 해트트릭과 박승철의 썩기골을 더해 4-0 대승을 거뒀다. 승점 41점(12승 5무 3패)을 기록한 목포는 선두 화성(승점 44점, 13승 5무 2패)과의 승점 차를 단 3점으로 줄였다. 목포는 지난 4월 맞대결에서 화성에 1-2 역전패를 당했다. 이를 의식한 듯 조덕재 감독은 "지난 화성과 경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오늘도 화성에 진다면 우승을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쉽지 않았지만 오늘은 꼭 복수를 하고 싶다"며 의지를 다졌다. 상위 두 팀 간의 대결단계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으로 펼쳐졌다. 특히 브라질 용병 루안과 샌디를 앞세운 화성은 초반부터 목포의 골문을 매섭게 위협했다. 그와 달리 뛰어난 수비 조직력을 기반으로 역습을 노렸던 목포는 전반 내내 화성을 괴롭혔다. 하지만 양 팀은 결정적 찬스를 살리지 못하며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팽팽했던 0의 균형은 후반 시작과 동

시에 무너졌다. 제갈재민이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3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넣은 제갈재민은 2분 만에 최오백의 크로스를 환상적인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2-0을 만들었다. 목포는 초조해진 화성을 영리하게 공략했다. 결국 후반 27분 제갈재민의 추가골, 후반 38분 박승철의 썩기골까지 터지며 목포가 지난 맞대결 패배를 설움했다. 경기 후 만난 제갈재민은 "해트트릭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실상 결승전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4월 맞대결 당시 얻은 페널티킥은 원력으로 찾는데 이번엔 중앙으로 차면 골키퍼와의 심리전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과감한 선제골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전주대 재학생이던 지난 2020년 U리그 왕중왕전 득점왕을 수상하기도 했던 제갈재민은 성인 무대 진출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온 유망주다. 이번 경기를 통해 성인 무대에서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됐다. 끝으로 그는 "팀mates들이 모두 잘해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수를 추격해야 하는 입장이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체력 관리를 잘해서 반드시 우승을 이루고 싶다"며 우승을 향해 각오를 다졌다.

김효진/기자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기본교육 실시

오는 9월 1일까지 주당 2회 진행

진도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동체 중심 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진도푸드 허브조성 기본계획을 이해하고 군민 주도형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당 2회 진행한다. 대상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며 전체 출석률 70% 이상 출석 시 수료 가능하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신활력공동체사업 공모 참여자격과 신활력사업 참여의 특전이 주어진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

와 문화, 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대 김영일 교수 등을 초청해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이해와 진도군 정책 ▲로컬푸드, 푸드플랜의 이해와 농촌관광 사업화 전략 ▲지역자원 상품화 전략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길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역량있는 인재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우리 화순군이 정답입니다.



화순군이 부모의 야간경제 활동, 출장, 병원 진료 등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21일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화순한양림스 어린이

집과 화순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은 24시 보육을 위한 시설개선, 역량 있는 보육교사 채용, 맞춤형 교구와 교재를 준비하는 등 운영 준비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였다. 이에, 화순군은 8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여 24시 어린이집 운영을 홍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배포했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을 홍보하자, 한 부모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아 줄 수 있는 응급실 같은 어린이집이 생겼다"라며

"화순군은 걱정 없이 결혼해서 아이 낳아 기르라고 신혼부부 대상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시간당 1천 원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까지 마련해 결혼에서 양육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화순군 가정활력과장은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운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추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4시간 긴급돌봄 이용 문의는 화순한양림스 어린이집, 화순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경호/기자



경북도, 복합적인 위협 대비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

이철우 지사, 민·관·군·경 종합훈련장 찾아 현장 지도 및 격려



- 2023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대테러 합동 진압훈련

경북도는 정부 연습 각본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을지2총)가 선포되자 전시 현안 과제인 북한 핵 공격 압박 상황을 가정한 주민소산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를 통해 이번 정부 연습 중점사항 중 하나인 북한 핵 위협 임박 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선의 방법은 현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인 북핵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의한 대북 억제력 강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 정권의 오판으로 핵무기를 사용했을 시 도민들에게 즉시 경보를 전파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위기 상황을 인지시켜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히 주민을 소산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신안보 위협이 대두되고 있어 테러 집단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드론, 생화학 무기, 사이버 테러 등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래 상황 예측을 통해 위기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을지연습에서 제외된 6개 시

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별 대테러 종합훈련을 22~23일 양일간 실시했다. 중앙통제 훈련지역으로 선정된 칠곡군은 신안보 위협 요소인 테러로 인한 인질극, 드론 공격, 화생방 테러 등과 같은 상황을 상정해 민·관·군·경 통합 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22일 오후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열린 대테러 합동 진압훈련장을 찾아가 현장 지도하고,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백화점, 기차역 등 대테러 예고 범죄가 증가해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한 훈련이다”라며, “오늘 훈련을 통해 상황 발생 시 기관 간 비상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대처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및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늘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임무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화된 환경과 현 시대 상황에 맞는 방안을 고려해 위기에 대비하고, 실천과 같은 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9월 동행축제, 대구의 심장 동성로에서 막 오른다!

특별행사를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함으로써 전국 소비확산 붐 조성

대구광역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특별행사를 9월 4일 대구의 중심 동성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위해 협력한다. 대구광역시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8월 23일 오전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과 함께 '9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은 국민, 힘 모아 기(氣) 살리기!' 경제활력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부·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소비촉진 행사로, 봄(5월)에 이어 가을(9월), 겨울(12월) 총 3차례 진행되며,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이달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29일간 열린다. 특히, 9월 4일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활력 증진에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인 동성로에서 개최해 소비확산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동성로는 1960년대 이후 지역 쇼핑의 중심지이자 대표 상권의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상권이 침체된 상황으로,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성로 부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9월 동행축제 특별행사가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함께하는 동성로 특별행사는 9월 4일 동성로 야외무대(동성로 28 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상생부스, 동행스트리트, 대구특별존, 체험존으로 운영되며, 저녁 7시 30분 메인행사로 ▲소상공인 응원공연, 동행축제 힘모으기 퍼포먼스, 대구 소상공인을 위한 동행 패션쇼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9월 동행축

제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 및 추석 명절과 연계한 '황금넷' 동행축제인 만큼, 지역 중소·소상공인·전통시장을 살리는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매 플랫폼인 다채물, 대구광역시 인증 브랜드관 슈메릭, 사회적경제기업 중합 유통채널 무한상사, 약령시 한방제품 특화몰인 약령몰 등 온라인몰에서 할인 쿠폰 지급, 가격 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대구형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인 '대구로'를 통해 치맥페스티벌 참가자에게 택시 및 배달에 사용할 수 있는 1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입점 전통시장 1만 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3천 원 할인쿠폰 지급 행사도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대구기명품관,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전시판매장, 대구 경북 상생장터, 군위전통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에서 가격할인과 사은품 증정, 노래자랑, 경품행사 등 각종 이벤트가 진행된다.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에서는 방문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야시장 바우처 쿠폰 지급과 기획 공연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구 치맥 페스티벌(8.30~9.3.), 대구 우수시장 상품전시회(9.8.~9.10.), 대구웨딩 페스티벌(9.15~9.16.),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9월 마지막주) 등 9월에 열리는 지역 축제·행사와의 연계해 동행축제 범 확산 및 소비촉진을 추진한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동행축제가 중소·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은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지는 동행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의 수돗물, '순수365 홍보디자인 공모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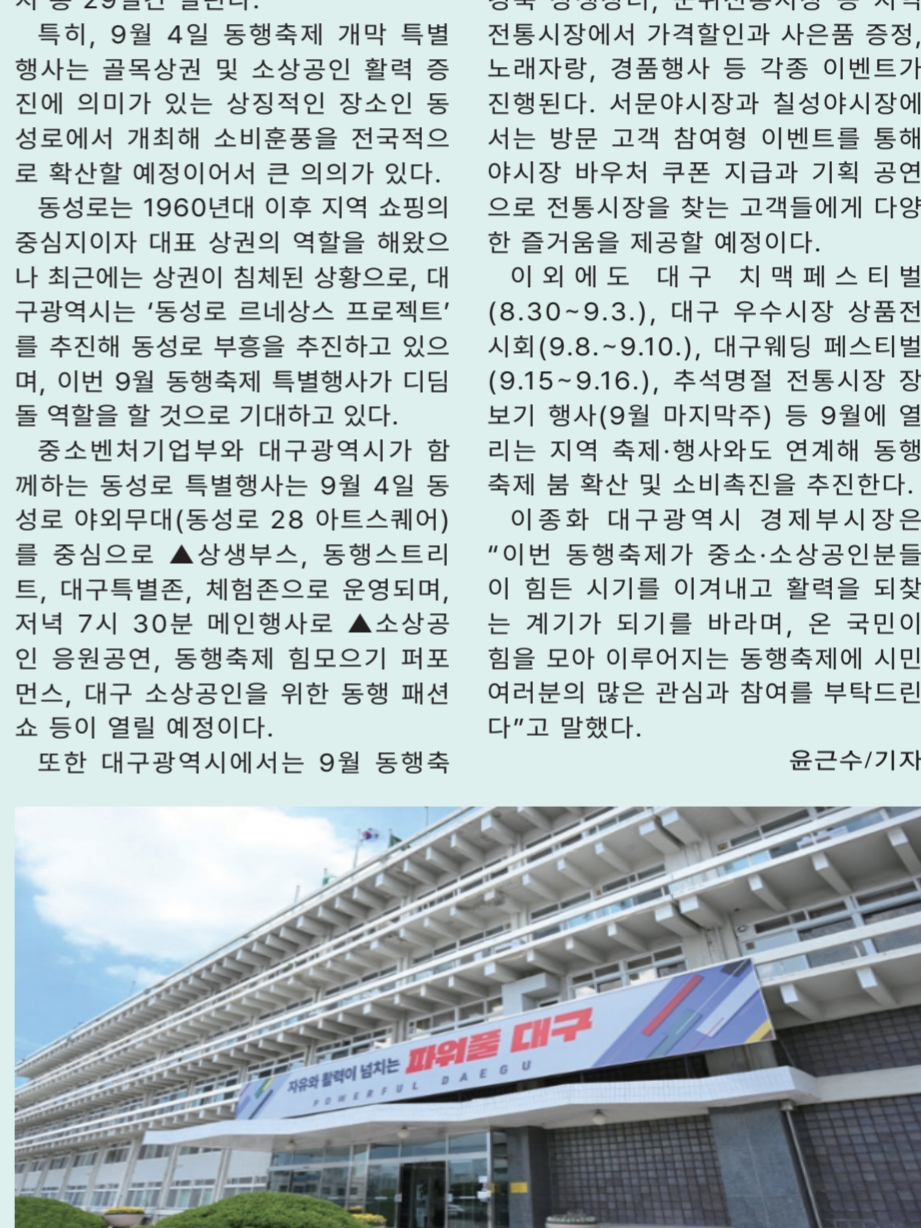
오는 10월 중 8개 작품 최종 선정 및 시상, 우수 디자인은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 예정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늘(23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순수365 홍보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부산의 수돗물인 '순수365'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홍보디자인을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의 수돗물 '순수365'"이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등 순수365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부산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부산시 수돗물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오늘(2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제이피지(JPG) 파일로 제작된 작품을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홍보디자인 규격은 가로 21센티미터에 세로 30.6센티미터, 인쇄도수는 4도다.

공모전에 제출된 홍보디자인은 디자인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시는 오는 10월 중 8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 중 대상 1명(200만 원), 우수 2명(각 100만 원), 장려 5명(각 40만 원)을 선정한다. 송상중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부산시 수돗물인 '순수365'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부산의 수돗물 '순수365' 홍보디자인 공모전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의 수돗물 '순수36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부산의 수돗물인 '순수365'에 대한 홍보디자인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의 수돗물 '순수365'"이다. 공모 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로, 공모 기간은 2023. 8. 23(수) 09:00 ~ 10. 1(수) 18:00 까지이다. 공모 분야는 1. 2차원 디자인(포스터, 배너, 브로셔 등), 2. 3차원 디자인(가방, 텀러 등), 3. 기타(영상, 사진 등)이다. 공모 대상은 19세 이상인 국민이며, 공모 대상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디자인 규격은 가로 21cm, 세로 30.6cm, 인쇄도수는 4도이다. 공모 디자인은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디자인은 10월 중 8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1명(200만 원), 우수 2명(각 100만 원), 장려 5명(각 40만 원)을 선정한다. 송상중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부산시 수돗물인 '순수365'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시와 국악으로 어우러지는 청송 주왕산

제8회 주왕산 시와 국악의 만남 개최

청송군은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00부터 주왕산국립공원 내 대전사에서 '제8회 주왕산 시와 국악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줄곧 이의태의 줄타기 공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민요 연주, 판소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인기 트로트 가수인 김희재와 김태연, 청송홍보대사 우연이가 출연하여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꾸밀 예정이다. 또한 행사 중간에는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국악 반주 아래 시낭송을 하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주왕산의 웅장한 기암을 배경으로 대전사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누구나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관람객이 쉽게 공감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와 늦여름 무더위를 떨쳐 버릴 수 있는 흥겨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멋진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모쪼록 이번 공연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여러분께 힐링의 시간이 되어, 음악과 함께한 주왕산 여행이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8회 주왕산 시와 국악의 만남

2023. 8. 26(토) 오후 2시 주왕산 대전사 특설무대

주연: 김희재, 김태연, 우연이

주최: 청송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청,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주왕산관광협회

문의: 주왕산 대전사 0541873-2908, BBS 대구북교반동 053427-5114

영양군, 남영양농협 2023년산 견고추 수매 실시

영양군은 남영양농협을 통해 8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2023년산 견고추 수매를 실시한다. 올해 수매 물량은 출하 약정을 체결한 20만 근 정도로 견고추 수매사업은 산지 가격지지 효과는 물론 고구야 시대에 유통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 효과를 가져와 영양군 고추 재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견고추 계약재배 수매 일정은 1차 꼭지제기 수매가 8월 17일 병육창고 농민들에게 8시부터 14시까지 진행되고 2차 일반수매(꼭지제기 포함)

는 8월 24일, 25일 2일에 걸쳐서 농협 주유소 마당에서 7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된다. 박명술 남영양농협조합장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년농사 일구시느라 수고하신 농민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력 부족, 농자재 가격 급증 등으로 농업인들이 걱정이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물며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견고추 TRQ 수는 농민들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판단되어 지난 7월에 견고추 물

량 수입 철저히 시기 조절을 건의했다"라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고추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앞으로도 고추 농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소모성 농자재 지원체계 개편 기본안 주민설명회 개최



의성군은 지난 22일 종합복지관에서 작물별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소모성 농자재 지원체계 개편 기본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모성 농자재 지원체계 개편 기본안에는 현재 여러 부서로 분산된 1년 주기 소모성 농자재 지원사업의 하나인 사업으로 통합하고 영농자재 전용 카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 통합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에 의뢰하여 작물별 지원단가와 농가별 지원한도 등을 산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편 기본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모성 농자재 지원체계 개편은 농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하면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올가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새롭게 변신... 준비 착착

10개국 11개 해외공연단, 18개 국내공연단 초청'브랜드가치 향상'

202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여드레간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축제의 순간을 경험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와 분리하여 탈춤축제의 킬러 콘텐츠로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또한, 구안동역사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웅부공원, 남쪽으로 탈춤공원 공연장까지 연결해 도심 전체를 축제장으로 대폭 확장한다.

마스크EDM파티, 마스크버스킹, 탈놀이단 등 기존 프로그램을 포함해, 탈춤 플래시몹, 탈춤 골든벨 퀴즈쇼, 원도심 워킹 트레일, 탈 랜덤 댄스 등 MZ세대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콘텐츠로 축제의 흥행을 이끈다.

또한, 10개국 11개 팀의 해외공연단과 작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내공연단 18개 팀을 초청해 국내외 손꼽히는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적 페스티벌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끌어올린다.

원도심 거리형·참여형 축제를 개최하되 메인무대를 구 역사부지 내 유희부지로 이전하는 새로운 변화도 꾀했다. 경동로 6차선 도로를 통제하지 않아 대중교통 흐름은 원활해지고, 탈춤공원과 공연장으로서의 접근성은 향상해

국내외 탈춤공연을 더욱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원도심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성은 살리고 불편 사항은 보완해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를 추진한다.

탈춤공원 내 빛충정원과 수목심터를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모디684앞에서 웅부공원 앞까지는 메인포토존으로 구성하고, 웅부공원에는 프린지 공연 운영과 함께 메타버스관 및 세계탈전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도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각종 체험부스, 거리 퍼레이드 등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또한, 강변주차장을 비롯한 축제장 곳곳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한편, 축제장의 중심인 구 역사부지와 탈춤공원 간 보행로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은 더욱 향상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1997년 처음 개최된 올해로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세계보편문화인 탈과 탈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 유일의 축제이다"라며 "이번 축제는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축제공간을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예정이며,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축제 스토리를 즐기면서 안동의 심장인 원도심을 활력 넘치게 할 것"이라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들녘특구 특화전략방안 모색, 소통하며 함께 발전!

특구별 핵심 리더 대상 워크숍 개최... 성공 공감대 확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8월 22일과 23일 2일간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농업대전환 들녘특구별 공동체 핵심리더 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특구 공동체들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구별 융복합 사업 개발을 위한 특화전략 방안 모색과 농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장이 됐다.

첫째 날은 청년 농업인의 특목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가와 상생 협력을 통한 6차 산업 성공사례를 시작으로 사라져가는 농업 유산의 가치를 되살린 농촌자원 융복합 사례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또 공동체 운영 활성화에 대한 특구별 임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날에는 공동체 경영에 필요한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 특강과 농산물 유통, 시장분석 및 농산물 가공 제품개발 방향 강의 등 특구 임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들녘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밀 생산과 가공 확산을 위한 베이커리 카페 모델 개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방안 등 1차에서 6차산업에 걸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대전환을 통해 2모작 작부체계 성공과 가공을 비롯한 6차 산업화 전략을 구체화해 농가소득을 2배 이상 올리겠다"라며, "특구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2023년 유관기관 통합 테러 대비 훈련 시행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향상 및 확고한 통합 대테러 대비태세를 완비 이세용 본부장,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한울본부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 본부는 지난 22일, 한울1발전소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통합방위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육군 50사단 주관하에 민·관·군·경·소방의 확고한 통합 대테러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통합방위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한울본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대 및 자체 소방대를 포함하여 50사단 예하 부대, 울진군 경찰 및 소방, 울진군청 방사능측정팀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미승인 드론이 발전소로 접근하는 것이 확인돼, 청·특경근무자가 초기 대응했으나, 폭발물을 탑재한 체 한울1발전소 연료건물에 충돌하여 자폭하고, 훈련을 틈타 지상으로 침투한 테러범이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에 진행하였다.

한울본부 청원경찰의 상황전파에 따라 본부 내 주둔군의 초동 조치가 이어졌고 울진여단 중원부대, 경찰해안 작전타격대가 출동해 원전 일대를 수색 정찰, 원점 보전 및 접근을 통제하고 검문소를 운용하며 초기대응을 주도하였다.

이와 동시에 폭발지점의 방사능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을 하였고, 육군 50사단 예하 부대를 차례로 투입해 추가 폭발물을 탐지했다.

이어, 공중정찰과 원전 주변 해안 수색, 특공대 전술팀과 특임대 합동작전 수행을 통해 테러범을 제압하는 것으로 훈련이 마무리됐다.

이세용 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울본부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2,670만 원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봉화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정지원금 2,67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김백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남권광역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전년도 공제회비(건물·시설물 재해 복구비)의 3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봉화군은 지난 7월 19일,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원금이 빠른

피해복구에 보탬이 될 것이며, 공제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백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남권광역센터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봉화군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자체 재정지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전국의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며, 공유재산 재해복구공제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포항고등학교,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마약 예방 공감대 확산 및 학생들의 안전 보장

류성연 교장, "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다짐해



포항 포항고등학교(교장 류성연)는 포항 장성고등학교 허홍범 교장의 지목을 받아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8월 21일(월)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유관 기관 합동 릴레이식으로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나는 나의 미래를 마약과 맞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마약 근절의 의지를 다지며 인증 사진을 찍었다.

포항 포항고등학교 류성연 교장은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통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성연 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포항여자고등학교 민형규 교장을 지목했다.

윤태용/기자



안양시, 범죄 예방 앞장... 여성안심길·둘레길 등 현장점검

만안경찰서와 비상벨·CCTV 작동여부 확인 및 출동 시뮬레이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안양시가 인적이 드문 관내 산책로 및 골목 점검에 나섰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날 오후 4시30분경 시·구청 관계 공무원 및 만안경찰서와 함께 안양동 지장사 주변의 관악산 둘레길을 방문해 종합안내판, 이정표 등을 점검했다.

이어 석수동 경인고대 주변 여성안심거울길에 있는 화장실 안심비상벨과 방범 CCTV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 작동 여부와 함께 실제로 관할 지구대가 신속하게 출동하는지도 직접 점검했다.

최 시장은 "최근 선량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흉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각종 안전 시설을 점검과 순찰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36곳에 안심거울 및

조명 등을 설치한 여성안심거울길을 만들고, 위급상황에서 앱을 통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개발한 '경기도안전귀가' 앱을 운영하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관내에 총 1165개의 방범 비상벨 및 417개의 화장실 안심비상벨을 설치해 이를 누르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이 CCTV를 통해 주변 상황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CCTV 및 바닥조명 설치, 등산로 이정표 추가설치 등 안전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용/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현장 시찰

정명근 화성시장이 2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자 공평항 위판장 수산물센터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일본이 22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일을 오는 24일로 예고함에 따라 수산물 오염 등 문제에 대처하고자 이뤄졌다.

정 시장은 정승만 경기남부수협조합장, 김진삼 공평리 어촌계장, 최병채 공평항수산물직판장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에서 어민들의 동향 및 수산물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방문하여 정 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긴급대책TF팀을 만들어 대응할 것과 해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전광판에 방사능 시료채취결과공개 검토를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정 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2,087명의 어민들

의 민생과 시민들의 안전"이라며 "해수 및 수산물 방사능 측정을 강화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실질적으로 해산물 소비가 늘어날 방안을 TF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화성시에는 공평항, 전곡항, 제부항 등 11개 어항에서 1,949어가, 2,087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경기도 최대규모인 14,851톤에 달하는 수산물(경기남부수협 위판량 기준)을 생산했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집중 점검

학교 주변 200m 이내 음식점, 편의점 등 168개소 식품안전 강화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가을개학을 맞아 22일부터 24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74개소, 편의점 및 슈퍼마켓 94개 등 총 168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조리,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여부 ▲어린이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식품 판매행위 ▲학교 매점 내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행위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 사항 및 개인위생관리 이행 여부 ▲남은 음식물 제공 및 재사용 조리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위생 상태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적발 업소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정기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 유통 차단 등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일일 새빛돌보미'로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 방문

새빛돌보미, 도움 필요한 위기 가구 발굴해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연계해주고, 돌봄서비스 제공

지난 21일 오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새빛돌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고 세류2동에 사는 한 홀몸어르신 집을 찾았다.

이재준 시장은 세류2동 직원들과 함께 좁은 방에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어르신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일일 새빛돌보미'로 활동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이 찾은 어르신은 여러 염증 때문에 발 형태가 변형돼 똑바로 발을 딛고 서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무더위에도 집 안에서만 지낸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은 어르신에게 "생활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시냐?"고 물으며 필요한 복지자원을 점검했다. 어르신은 이재준 시장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이재준 시장은 "새빛돌보미로 나서 주신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출범한 '새빛돌보미'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해 주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사회보장협의회 위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등이 새빛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새빛돌보미로 활동하려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한

후 관련 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원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돌봄포인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는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병상/기자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관리체계 강화

방류 전, 월2회 → 오염수 방류 후, 매일 검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함에 따라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매일 시행하는 등 방사능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월 2회 도내 주요 유통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고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 도내 주요유통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시료를 구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에는 도 홈페이지 및 언론사를

통한 즉시 공개로 강원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확대 및 촘촘한 방사능 검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서해선 KTX 조기 연결 '청신호' 쫓다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국토부·지자체와 통과 총력 대응"

민선8기 힘센충남이 조기 연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이 마침내 청신호를 밝혔다.

도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해선 KTX 연결은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무산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사업이다.

노선은 경기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고속선까지 상하행 7.35km로, 총 사업비는 6843억 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할 예정인 예타에서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한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본계도에 올라 본격 추진된다.

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공사를 시작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2030년 마침표를 찍으며 '서해안 KTX 시대' 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해선 KTX를 이용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할 경우 소요 시간은 48분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경기 안산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해 이동 할 때 걸리는 90분에 비해 42분, 장항선 새마을호 2시간에 비해서는 1시간 12분이 단축된다.

서해선 KTX는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주민 교통편의 향상, 서해안 관광 활성화,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서해선 KTX는 충남 서해안권과 수도권 간 1시간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8기 들어 서해선 KTX 조기 연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B/C)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유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1월과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선 KTX 조기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을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국토부는 울 초 '연내 예타 조사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 연장 90.01km 규모로, 사업비는 4조 842억 원이며, 지난달 말 기준 93.6%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시민이 체감한 적극행정 우수 직원을 추천해 주세요"

8월 31일까지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을 위한 시민 추천 접수

아산시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이 체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직원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귀감이 되는 직원 등이며, 일반적인 칭찬이나 시민에게 친절하게 응대한 사례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추천 사례에 대해 1차 내부 심

사 및 온라인 국민투표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며,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인사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특별휴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한 적극행정 사례를 추천받고자 한다"며 "아산시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청년을 촘촘히 지원하는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6월 말 기준, 1,063명의 청년 지원

원주시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지역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지원 ▲창업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등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리더 아카데미, 재테크 교육, 법률 및 노무 상담 등 청년들의 복지와 교육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원주시 청년지원센터는 6월 말 기준 1천 명이 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문화, 체육·여가, 복지·일자리 창업 등 3개 분과 5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주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년 문제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성과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청년들에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9월 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자주 만나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올해 안에 청년지원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제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운영 결과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 확대할 사업은 적극 확대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청년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원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충북도, 한국관상어품평회서 비단잉어 '금상' 수상

우수한 품질의 비단잉어, 심사위원들에게 호평

충북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아쿠아팜에서 개최된 2023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및 제8회 해양수산부장관배 한국관상어품평회에 참가하여 비단잉어 부문 1위(금상)를 수상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관상어류, 수조, 용품, 약품 등 60여개 관련업체가 참가했으며, 관상어산업에 대한 각종 정보교류를 통해 관련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관람객 수가 만여명 이상 찾아오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자체생산한 관상어 500여 마리를 무료분양하여 국민들과 관상어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우리도 핵심사업 대국민 홍보를 통해 충청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특히, 품평회 참가를 위해 우량 친어 확보와 종자생산 및 선별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비단잉어를 생산해 왔으며, 그 결과 제8회 해양수산부장관배 한국관상어품평회에 63cm급 비단잉어(홍백, 紅白) 1마리를 출품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금상을 받은 비단잉어는 홍색과 백색의 아름다운 체색조화와 균형 잡힌 강인한 체형의 우수성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비단잉어 품평회를 통해 고품질 비단잉어 자체 생산능력 우수성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신품종 개발 및 우수한 개체를 생산하여 도내 관상어 양식어가에 기술을 지도를 함으로써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고, 우수형

질 비단잉어 종자은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2023년 태백시 경로당 실버가요제 개최

어르신들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2023년 태백시 경로당 실버가요제가 22일 오전 태백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2023년 태백시 경로당 실버가요제는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지회장 이진수)가 주최하고 태백시와 태백시의회,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후원했으며 실버예술단의 공연으로 이번 행사는 한층 더 풍요롭게 진행됐다.

예선을 통해 본선에 오른 14명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출전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실버가요제는 박옥순(대산) 어르신 금상을, 장호건(돌구지) 어르신 은상, 김부래(초막), 서영식(교동) 어르신 동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장덕란(백운), 김영숙(절골), 박귀숙(철암주공), 박춘화(하나), 김갑용(중앙), 이육선(상장문학), 백형국(상사미), 김옥란(중앙), 임창옥(동점), 김재국(피네골) 어르신이 수상했다.

이진수 노인회지회장은 "태백시 경로당 실버가요제 및 실버예술단 공연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행복하고 보람된 추억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근/기자



대전바이오산업 대표 이름을 지어주세요!

다음 달 5일까지 대전시 공식 SNS 채널에서 네이밍 공모

대전시가 지역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이름을 찾기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4일간,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대전바이오산업 네이밍 공모전'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대전시 바이오 헬스산업의 우수성을 표현하고 ▲대전에서 벤처창업을 시작하면 세계시장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장기적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바이오 도시와 차별화된 독창적 이름을 발굴할 계획이다.

참여는 네이머링크 또는 OR 코드를 통해 할 수 있고,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된 아이디어 중 대표 이름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이름은 앞으로 대전의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슬로건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산업 환경과 바이오기업들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은 국내 최대의 바이오 원천 기술 공급지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고급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00여 개의 디테크 기반 바이오벤처 기업이 집중해 있다.

또한, 국내 1호 바이오벤처인 '바이오니아'가 있고 지역 내 상장기업 중 46%가 바이오기업일 만큼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 특화도시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약 바이오벤처 2개 기업이 1조 5천억 원가량의 기술수출 성과를 거두었고, 신약 개발을 비롯한 진단·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원호/기자



강원형 K-연어 산업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

8.22, 강원특별자치도-케이스마트양식(주) 연어 산업화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 노르웨이 현지 조사단은 "전 세계 60조 원 규모의 연어 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8월 22일 노르웨이 현지에서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와 K-연어 산업화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광복군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 대표, 트론 하콘 노르웨이 새면에블루션 대표와 잉알 스카르보이 총괄책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르웨이 새면에블루션 양식단지내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어 스마트양식, 부산물, 사료, 유통, 가공, 시스템 등 전후방산업 육성 협력, 강원형 K-연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연어 양식산업단지 개발 협력, 연어 산업화 분야별 기술 연구개발, 연어 전문가 양성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는 (주)동원산업과 노르웨이 새면에블루션이 설립한 합작회사로 '25년까지 노르웨이 새면에블루션 양식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하여 양양군에 육상 연어양식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 연어생산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선진 양식기술과 산업체계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연어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에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양양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조사단을 구성하여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노르웨이 전후방산업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있다.

노르웨이 ICT 기반 자동화 양식 시스템 및 기자재, 유통·가공 시스템, 연어 수출 이력제, 부산물 활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대 양식 박람회인 "아쿠아 노르(Aqua Nor) 2023"에 참가하여 노르웨이와 연어 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다양한 분야의 해외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대표 연어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발판 삼아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나주 배주스, 미국 코스트코 매장 입점

전남도, 브랜드관 등 현지 시장 맞춤형 전략 성과...22일 상차식



전남도가 지역 식품 중소기업 좋은영농조합법인이 자체 개발한 'IdH* 배주스' 제품을 미국 초대형 유통체인 코스트코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IdH'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배' 표기다.

전남도는 22일 오후 김영록 도지사와 이기선 대표, 도내 수출 유관기관장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IdH배주스' 미국 코스트코 입점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 선적 물량은 17톤으로 4만4천 달러 규모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2020년 7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한데서 비롯됐다. 미국 현지인이 이용하는 주류(主流) 식품마켓을 집중 공략해,

2021년 11월 고흥 예덴식품의 '유기농 유자주스', 2022년 2월 여수 (주)아라움의 '크리스피 스쿼드스낵(오징어 튀김스낵)'을 코스트코에 수출한데 이어 이뤄낸 세 번째 성과다.

미국 현지에서 숙취해소에 한국산 배가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난데다, 100% 한국산 배와 고흥 유자로 만든 무설탕 제품인 좋은영농조합법인의 'IdH 배주스'가 물을 넣지 않는 NFC(Not From Concentrate) 착즙공법으로 만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NFC 착즙공법은 생과일을 압착 방식으로 짜서 착즙하는 것으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만 살균 과정을 거쳐 과일의 맛과 향, 비타민 등의 영양성분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

는 방식이다. 미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식품 소비시장이다. 미국 전역에 572개 유통매장을 보유한 코스트코는 미국 내 3억 2천만 명의 인구 중 1억 명이 넘는 유료회원을 보유, 충성도 높은 회원이 가장 많다.

좋은영농조합법인은 전남도의 수출 전략품목 지원사업인 '비교우위 스타품목 지원사업'에 선정돼, 해외 시장 맞춤형 제품개발과 디자인 개발을 거쳐 올해 2월 'IdH 배주스'를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과 남도장터유에스(US)에 입점시켰다. 이어 전남도 온라인 수출 플랫폼 현지 운영사인 크리에이티브 LLC(대표 선장)를 통해 미국 코스트코 수출까지 이뤄냈다.

이날 선적한 제품은 9월 말 샌프란시스코 등 20개 매장에서 동시 판매될 예정이다.

이기선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국 코스트코 입점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나주배'라는 좋은 아이템과 수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대표과일로서 전 세계 식품 시장에서 나주배의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코스트코 입점

은 국제 수출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한 수출기업의 열정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남도음식을 소재로 한 더 많은 식품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코스트코에 한국식품을 지속해서 납품하는 기업은 CJ, 농심, SPC, 풀무원, 오뚜기, 대상 등 국내 식품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식품기업으로는 신안천사김(주), 고흥 예인T&G와 예덴식품영농조합, 여수 (주)아라움에 이어 5번째 이었던 것이다.

이는 전남도와 나주시는 물론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본부세관, 한국무역협회,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농협전남지역본부, 나주배원예농협 등 관내 많은 수출 유관기관의 지역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박종배/기자

경북교육청, 2023 을지연습 '기관소산·이동훈련' 실시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 유지 기능 강화

경북교육청은 22일 경산시 소재 본청 직속 교육행정기관으로 예비 소산 시설 이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군의 표적 공격으로, 소산 시설인 총무 시설의 고유기능 수행이 극히 제한될 경우를 대비해 본청 전 행정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자 마련됐다.

비상사태 발생 시 예비 소산 시설로의 이동은 선발대, 본대, 후발대로 나누어 본청 직원과 중요서류 등이 순차적으로 이동된다.

본청 부서별 직원 1명씩 18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본대 소산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위해 본청 버스를 이용해 전시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문서와 행정장비 등을 예비 소산 시설로 이동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예비 소산 시설에 도착해 부서별 상황실과 사무실 규모 실측, 전산·통신의 회선 상태와 보안성 검토 등 소산 후 본청 행정 기능의 정상화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박귀훈 총무과장은 "안보 태세 구축에 힘을 모아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천과 같은 내실 있는 훈련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을지연습 시행

경북교육청은 23일 본청에서 전시 위기 대응력과 안보의식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 학부모회장연합회 22명을 대상으로 을지연습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올해 55회째를 맞이한다.

행사에 참석한 경북 시·군 학부모회장협의회 회장들은 비상계획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한반도 가상전쟁 시나리오와 핵공격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특히 전시상황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본청 직원들의 훈련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을지연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나라사랑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오늘 참관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자녀와 공유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자녀와 공유하는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



대구시교육청, 현장기동감사 운영으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예방에 힘쓴다!

최근 3년간 38곳 현장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9천1백만 원 절감



대구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오는 9월 22일까지 예산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9곳을 대상으로 현장기동감사를 실시한다.

현장기동감사는 사전 예방감사를 통해 부실 공사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2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 품질·안전·공정·환경 관리의 적정성, 현장 안전관리 실태,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견실 시공을 위한 자재 승인 및 품질시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기동감사는 2학기를 맞

아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과 장마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잇달아 발생하는 지반 붕괴, 산사태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및 주위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육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현장기동감사 운영으로 최근 3년간 38곳의 현장을 지도·점검하여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예방했고, 9천1백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윤근수/기자

봉화도서관,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미있는 교과서 속 사자성어' 등 4개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관장 장낙희)은 어린이,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4개를 운영한다.

초등 2~5학년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교과서 속 사자성어'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고 관련 독서원예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라피 3급 자격증반'과 시에 대해 이해하고 시낭송 기법을 배워보는 '마음을 울리는 시낭송'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이번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8월 23일(수) 10시부터 각 강좌별 1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도서관 누리집(www.gbelib.kr/bh)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054-673-0973)로 신청할 수 있다.

봉화도서관 장낙희 관장은 "지역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일반인들이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독서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배움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내용

장소: 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프로그램명	대상(인원)	운영기간	강사명	내용	재료비
재미있는 교과서 속 사자성어	초등 2~5학년 (10명)	9.2.-12.2. 매주 토 14:00~15:30 (12회)	박정미	·사자성어란? ·교과서 사자성어 배우기	없음
캘리그라피 자격증반(3급)	일반인 (10명)	9.5.-11.28 매주 화 10:00~12:00 (12회)	박수진	·캘리그라피 배우기 ·3급 자격증 응시	10만원 (응시수수료 별도)
마음을 울리는 시낭송	일반인 (10명)	9.6.-11.8 매주 수 10:00~12:00 (10회)	정선옥	·시 이해하기 ·시낭송 기법 배우기 ·시낭송회 개최	없음
우리들의 마음정원 가꾸기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등1~6학년 (10명)	10.7.-11.11 매주 토 13:00~14:30 (6회)	원찬수	·그림책 함께 읽기 ·독서원예체험하기	없음

※ 상기일정 및 내용(재료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방법

- 신청일: 2023. 8. 23. (수) 10:00~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1) 도서관 누리집(www.gbelib.kr/bh)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054-673-0973)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방규

제 1228 회 서초 금요일음악회한여름밤의 꿈오는 25일 열어...마지막 여름밤 “서초금요일음악회 한여름밤의꿈”보러오세요!

1부 한국재즈수비대의 “Jazz Night” 2부 아트컴퍼니 윤슬의 퍼포먼스 오페라 “한여름밤의 카르멘”공연

서울 서초구는 오는 25일 19시에 서초금요일음악회 8월 공연 ‘한여름밤의 꿈’을 서초 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2023 서초금요일음악회 공모 선정단체인 ‘한국재즈수비대’와 ‘아트컴퍼니 윤슬’이 출연한다. 1부는 한국 재즈의 새로운 부흥과 트렌드를 이끄는 한국재즈수비대의 “우린 모두 재즈클럽에서 시작됐지”, “천년의 섬”, “Fly Me The Moon”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2부는 아트컴퍼니 윤슬의 퍼포먼스 오페라 무대로 비제의 대표작 “카르멘”이 공연될 예정이며 메조소프라노 김순희, 바리톤 유유석등이 출연한다.

관람 인원은 선착순 600명으로 진행되며, 서초구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서초금요일음악회는 지난 29년 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서초구의 대표 문화 음악 프로그램으로 공모 선정 단체의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기획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1월 ‘서리풀 갈라콘서트’를 시작으로 총 14회째 공연이 진행중이며, 매년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주민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모든 공연은 ‘서초금요일음악회’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8월 공연이 제목처럼 주민들에게 한여름밤의 꿈같은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금천구, 안양천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서울과 경기 서남권 지역에 흐르는 안양천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공유하는 자리

금천문화재단은 9월 1일 오후 7시에 금나래갤러리에서 시민 원탁회의 ‘스토리 나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문화재단과 광명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문화사업인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無舞 Move)’의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세 기관은 지난 5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맞춰 안양천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여 왔다.

시민 원탁회의 ‘스토리 나이트’는 서울 금천·구로·영등포와 경기도 안양·의왕·광명 등 안양천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원탁에 앉은 참여자들은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안양천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벚꽃을 보며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거나, 안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상 등 안양천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공유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60명)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 간 나눈 다양한 이야기와 결과물은 향후 문화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안양천은 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소중한 생태자원”이라며, “이번 행사가 참여자들에게 안양천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대문구, 베트남 빈즈영성 지안시와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빈즈영성(BINH DUONG PROVINCE) 공무원과 기업인들 서대문구 방문



서대문구는 이달 21일 구청을 방문한 베트남 빈즈영성(BINH DUONG PROVINCE) 공무원과 기업인들에 대해 환영식을 개최하고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우웬 반 장 빈즈영성 부성장 ▲호 광 디엵 지안시(DIAN CITY) 당서기장 ▲보 티 탄 호영 투언 안시(THUAN AN CITY) 시의회 부의장 등 빈즈영성의 공무원 11명과 기업인 4명 등 모두 15명이었다.

이성현 구청장은 환영식에서 “빈즈영성 지안시와 서울 서대문구는 공통점이 많은 도시”라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두 도시가 국제화 시대에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안시와 서대문구는 유수의 대학들이 위치해 있으며 교통 인프라 조성과 활력 넘치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지안시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빈즈영성의 산업, 경제, 교육 중심지다.

이 구청장은 또한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웬 반 장 빈즈영성 부성

장은 “빈즈영성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서대문구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 광 디엵 지안시 당서기장도 “앞으로 서대문구와 지안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교통, 환경, 교육,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대문구의 국외 자매도시로는 중국 베이징시 하이톈구,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가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만식/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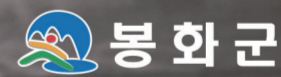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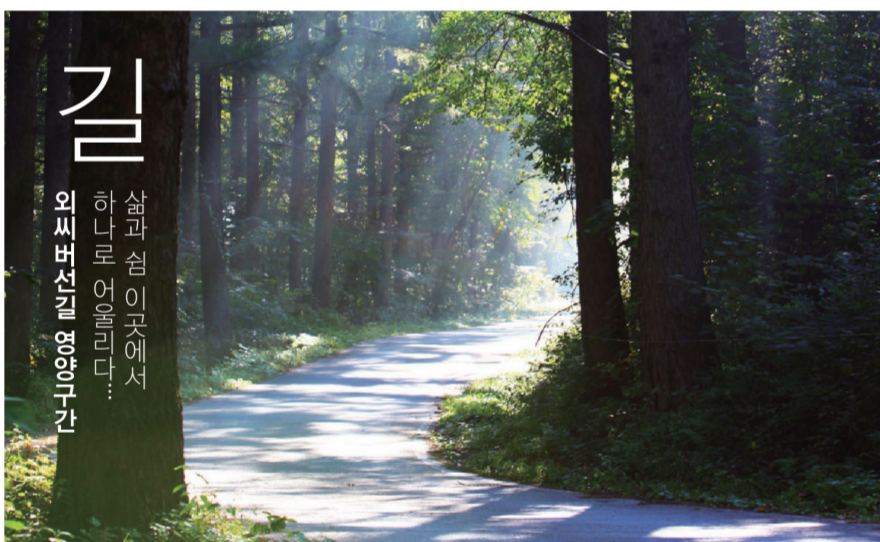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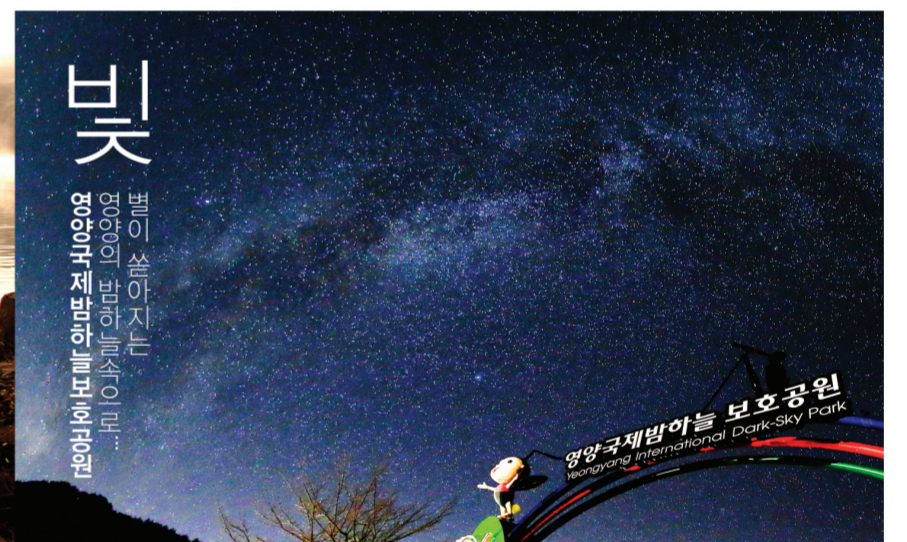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니면 언제라도...
의외롭게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평온하고
은밀한 아름다움...
영양나들이의 신기
영양 대표전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밤하늘을 수놓아...
영양이 빛나는 별빛이여...
영양이 빛나는 별빛이여...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식지



맛

사백년째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